

오순절 후 스물세 번째 주일

THE WORSHIP SERVICE OF 23RD SUNDAY AFTER PENTECOST

주후 2023년 11월 5일 오전 10시

인도: 윤영록 장로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66 장 “다 감사드리세” (통일 20)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45 번 (시편 103 편)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643 장 “세번 아멘” (통일 555)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윤영록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시편(Psalm) 136:1-9	금종각 집사
찬 양 Anthem	“임하소서”	찬양대
설 교 Sermon	“내가 감사해야 할 이유” (Why I Should Be Thankful)	류상수 목사 (차타누가 한인장로교회)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17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통일 353)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파송 찬양 Sending Hymn	588 장 “공중 나는 새를 보라” (통일 307)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류상수 목사

*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고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표현하면서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못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선언하면서도,

주님의 몸 된 지체를 사랑으로 보듬어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말로만 끝났던

우리의 부끄러운 신앙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시금 거룩한 주님의 교회로,

다시금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개역개정 시 136:1)

“Give thanks to the LORD, for he is good. His love endures forever.”

(NIV Psalm 136:1)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11/5 (주일)	11/6 (월)	11/7 (화)	11/8 (수)	11/9 (목)	11/10 (금)	11/11 (토)
	왕하18	왕하19	왕하20	왕하21	왕하22	왕하23	왕하24
본문	몬1	히1	히2	히3	히4	히5	히6
	호11	호12	호13	호14	울1	울2	울3
	시132-134	시135,136	시137,138	시139	시140,141	시142,143	시144

수/요/ 찬/양/집/회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찬양집회 (11/8수 오후730)	“너희도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벧전2:1-8)
토요 새벽기도회 (11/11토 오전630)	“() – 김재우 장로

지난 주일(10/29) 말씀

“주께서 살리시리라” (롬 8:1-11)

“생각을 조심하라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하라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하라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하라 인격이 된다. 인격을 조심하라 운명이 된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말은 가장 오랫동안 영국 수상을 지냈던 마가렛 대처(Margaret Thatcher, 1925-2013)가 자주 언급하면서, 더욱 유명해진 말이라고 합니다. (흔히들) “말 조심하라”고는 이야기 해도, “생각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데, (사실) 이 말의 방점은 “말”이 아니라, “생각”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롬 8:5-6)고 말씀한 것입니다. 즉, 지금 우리가 무엇을 좇아져 살아 가고 있는지의 여부는 전적으로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에 달려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영의 일을 생각하며? 성령을 따르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를 위해,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세 가지인데, 1)첫째는, 우리의 생각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두라(롬 8:7)는 것이고, 2)둘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라(롬 8:8)는 것이며, (마지막) 3)셋째는, 성령을 좇아 생각하고 성령을 좇아 행하라(롬 8:11)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생각은 생명을 살리는 신령한 생각들로 채워지게 되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